



제76차 F. D. I. 참가를 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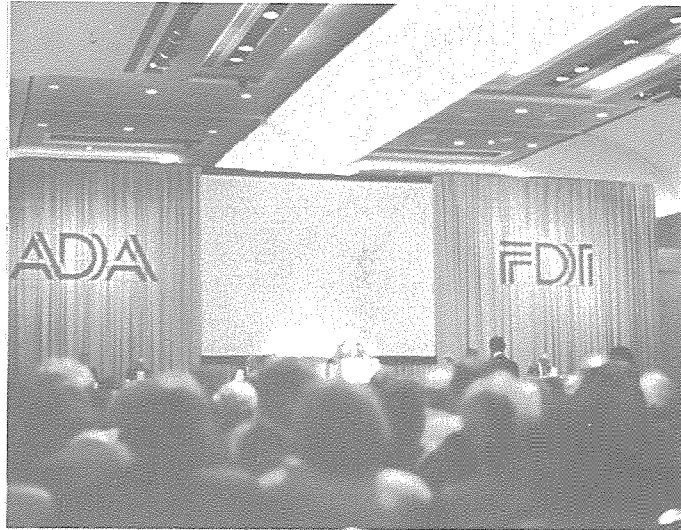
亞·太 회의의 弘報日程을 마치고 귀국

李鍾守치협회장, 丁東均 亞·太조직위원장, 梁精康 亞·太사무총장을 주축으로 한국대표단 일행은 지난 6일 제76차 F. D. I. 총회에 참석함과 아울러 亞·太홍보를 위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0일 무사히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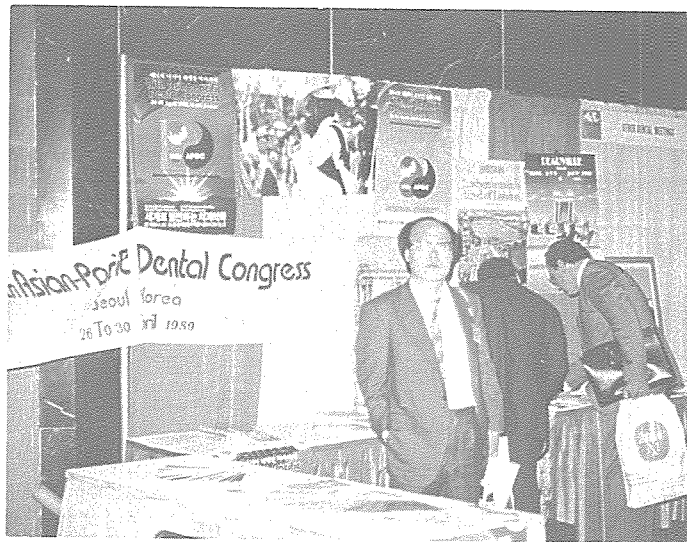
「人類를 爲한 齒醫學」이란 主題아래 열린 동 총회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0여개국에서 3만5천여명이 參集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동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일행은 亞·太 홍보를 위한 총회장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李鍾守치협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일행은 F. D. I. 총회에 참석한 日本치과의사회 대표단을 초청 리셉션을 가지는 한편 亞·太연맹 사무총장인 “헤네디기”박사를 방문하여 89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4차 亞·太회의의 준비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어 WHO 西太平洋地域 구강보건담당관 “윙회등”박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WHO와의 Joint Session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외에 LA한인치과의사회를 방문했으며 귀로에 日本치과의사회를 방문 양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14차 亞·太회의에 많은 회원이 참석해 줄것을 권유했다.



〈인류를 위한 치의학을 주제로한 동 총회에서는 많은 연제가 발표되어 참가회원의 관심을 끌었다〉



〈총회장에 설치된 亞·太홍보부-스에서 참가회원이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